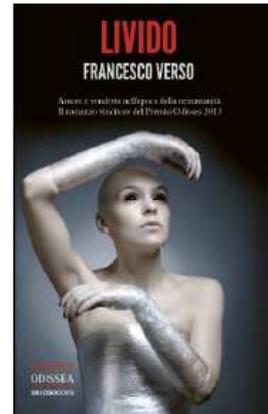


# EYA NEWSLETTER

## ENGLISH TITLES

### FICTION

제목 : LIVID  
가제 : 리비드  
저자 : Francesco Verso  
출판사: Xoum  
발행일: 2014년 7월 23일  
분량 : 260 페이지  
장르 : 소설/ SF 소설



- \* 이탈리아 최고의 SF 소설상 **Cassiopea Award(2014년)**와 **Odyssey Award(2013년)** 수상작
- \* SF 소설에 수여되는 이탈리아 **Premio Italia** 최우수상 수상(2014년)
- \* “금세 다가올 세상을 슬쩍 보여주면서, 사람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깊이 있게 통찰한 책” – 휴고 상, 네볼라상 수상작가 제임스 패트릭 켈리

새로 나온 기계를 큰 맘 먹고 장만할 때, 어떤 기계든 상관없이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다. 최신 제품이라 값도 별로 저렴하지 않은 이 물건을 사봤자 금세, 심할 경우 불과 몇 개월 안에 또 다른 신제품이 나올 텐데 굳이 이것 사야 하나 하는 고민이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아주 쉽게 푸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새 물건을 사고, 신상품이 나오면 원래 가지고 있던 건 팔고 다시 최신 제품을 사는 것이다. 이런 소비주의는 개인의 경제적 삶에도 문제가 되지만 물건을 아무렇지 않게 사고, 버리고, 파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내 손에서 떠나간 물건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무신경한 태도를 키운다. 이탈리아에서 손꼽히는 SF 소설가로 인정 받는 작가는 그리 머지 않은 미래인 2040년을 무대로 한 이 소설에서 이러한 우리의 생활 방식이 어떤 비극을 낳았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사람과 기계의 경계가 모호한 ‘포스트휴먼’이 살아가는 세상과 더 이상 인간이 제대로 살기 힘든 환경 속에서 벌어지는 비극적인 사건들과 그럼에도 살아 숨쉬는 인간성의 뜨거운 희망을 그린 독특하고 인상적인 소설이다.

열다섯 살 피터는 쓰레기장을 돌면서 팔 수 있을 만한 물건을 모으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 온통 쓰레기로 뒤덮이고 누가 불을 내지 않아도 늘 어디에선가 무언가가 타는 연기가 자욱한데다 하늘마저 뿌옇게 오염된 공기와 구름에 어두침침한 날이 끊이지 않는 도시 한 켠에서 팀을 이뤄 쓰레기 더미를 헤치는 것이 피터의 일이다. 사실 피터는 형 찰리가 속해 있는 무리를 따라다니고

싫지만 어릴 때 사고로 다리에 의족을 하는 바람에 매번 거절당했고 하는 수 없이 별 재미도 없는 쓰레기 뒤지는 일이나 할 뿐이었다. 찰리가 속해 있는 ‘데드 본스’라는 갱단은 비싼 값을 주고 팔 수 있는 물건을 굳이 쓰레기더미에서 찾지 않고 훑치고 빼앗고 필요하다면 상대를 때리고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하지만 ‘살인’이라고 보기엔 애매한 것이, 이들이 상대하는 대상은 주로 ‘넥스휴먼’들이기 때문이다. 생물학적인 몸은 이미 죽고 없지만 인공적으로 만든 신체에 생각과 마음을 데이터화하여 업로드시킨 새로운 존재, 몸은 기계인데 내면은 인간인 이 새로운 인간은 그 특별한 기술을 이용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일종의 특권이였다. 그리고 데드 본스는 이도 저도 아닌 넥스휴먼들에게 아주 깊은 반감을 갖고 있었다.

쓰레기를 더 이상 처리할 곳이 없어 길거리마다 폐기물이 쌓여 있고 국가 차원에서 재활용과 재사용을 진두 지휘하는 암울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피터와 찰리 형제는 끔찍한 사고를 계기로 갈라서고 만다. 피터가 오래 전부터 짝사랑하던 여자, 조그마한 여행사를 운영하는 넥스휴먼 알바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피터는 늘 먼 발치에서 알바를 바라만 볼 뿐 선뜻 다가서지 못했다. 그녀가 여덟 살이나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왠지 발도 절고 쓰레기나 모으고 다니는 자신은 범접할 수도 없으리란 생각에 자신감은 늘 바닥이었다. 그런데 어느 오후, 형 찰리가 데드 본스와 함께 알바를 무참히 짓밟고 길에서 죽이는 장면을 보고 만 것이다. 알바의 온 몸이 산산이 부서지고 조각이 나는 그 잔혹한 장면을, 죽어가는 두 눈 속에 서린 절망과 괴로움을 피터는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이 일로, 피터는 알바를 향한 자신의 사랑이 생각보다 더 깊었다는 사실을 더욱 절실히 깨달았다.

모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터는 가족들과의 연도 끊은 채 알바의 망가진 몸을 ‘고쳐서’ 그녀를 되살리기로 마음 먹는다. 모두가 비웃는 이 무모한 도전은 무려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대장정이 되고, 우연히 만난 부랑자 이온만이 피터의 곁에서 그 힘겨운 싸움을 돕는다. 과연 피터는 알바를 되살릴 수 있을까? 쓰레기더미에 갇혀 생명이 위태로운 와중에도 아무렇지 않게 또 사고, 버리며 비극을 자초하는 세상에서 사랑 하나만을 바라보는 피터의 모습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상상 속 이야기로만 치부할 수 없는 미래사회의 모습이 생생함을 더하고 ‘인간’의 본질을 더욱 고민하게 되는 소설이다.

#### <저자 소개>

프란체스코 베르소(Francesco Verso)는 이탈리아 볼로냐 출신의 SF 소설가로 데뷔소설 『Antidoti umani』가 SF 소설 매거진에서 수여하는 상 Urania Mondadori Award의 최종 결승에 올랐다(2004년). 2009년에는 10,000부 이상 판매된 소설 『e-Doll』로 해당 상을 수상했다. 『LIVID』는 그의 작품 중 처음으로 영어로 번역된 소설이다. 현재 로마에 살면서 시리즈 도서 『Future Fiction for Mincione Edizioni』의 편집을 맡고 있으며 여러 간행물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제목 : THE MARVELOUS MISADVENTURES OF INGRID WINTER

가제 : 잉그리드 윈터의 아주 멋진 불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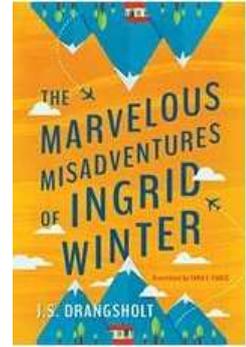
저자 : J.S. Drangsholt

출판사: AmazonCrossing

발행일: 2017년 3월 1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소설/ 가족 소설



\* 2017년 아마존 '킨들 퍼스트 셀렉션(Kindle First Selection)' 선정작

\* 일도 가정도 완벽하게 지키고 싶은 신경과민 엄마의 좌충우돌 인생을 그린 코믹하고 유쾌한 노르웨이 원작 소설

평생 동안 가족들과 알콩달콩 살면서 마당에 채소도 키우고 장미도 가꾸며 다 함께 늙어가는 것이 잉그리드 윈터의 소박한 꿈이었건만, 그 꿈은 결코 소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 빨리 드러났다. 아이가 하나 생기고 돌, 셋으로 늘어나면서 하루하루는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신을 차릴 수도 없이 흘러가는데 신기하게도 그 사이사이 늘 사과하고, 부끄러워해야 하는 일들과 민망한 사고들이 연이어 터진다. 문제는 남들보다 신경이 아주 예민한 잉그리드가 대학 교수이고 직장에서도 성공하고픈 열망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 2012년 발표되어 「뉴욕타임스」에서 80주 넘게 베스트셀러에 오른 마리아 썸플의 소설, 『어디 갔어, 버나뎃(원제: Where'd You Go, Bernadette)』의 개성 넘치는 여주인공 버나뎃 폭스가 노르웨이에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은 잉그리드 윈터의 독특한 발상과 희한한 선택이 주는 뜻밖의 재미와 아이 키우는 직장 여성이라면 누구나 격하게 공감할 수 있는 친근감이 고루 버무려진 코믹한 소설이다.

지역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는 잉그리드는 어딜 가나 주변에 온통 자신을 보면서 쫓쫓 혀를 차는 사람들 틈에서 살고 있다. 학교에 출근하면 경계성 성격장애가 의심되는 라이벌이 호시탐탐 일을 방해하고 사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다른 교직원들도 대부분 잉그리드의 연구를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직장생활을 하느라 세 아이들의 학교나 유치원에서 수시로 개최되는 온갖 행사에 제대로 참석을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건만, 그런 태도를 무신경하고 불성실하고 심지어 부모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평가하는 학부모들은 잉그리드를 늘 날선 눈으로 찌러본다. 어떻게 그 많은 체육활동, 레크레이션 행사, 학부모 모임에 다 참석하란 말인가! 편히 잠잘 시간은커녕 다리와 겨드랑이 털도 한 달 동안이나 제모를 못할 정도로 시간 여유라곤 없는 잉그리드에게 그건 너무 가혹한 요구였다. 아이가 토한 음식 자국이나 전날 밤 들이킨 와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옷을 입고 출근한다거나, 옷을 뒤집어 입고 중요한 회의에 근엄한 얼굴로 앉아 있는 일은 이제 잉그리드에게 더 이상 부끄럽다는 감정조차 일으키지 못하는데 아이들 생일파티에 귀여운 아이들에게 사탕을 줌 줬기로서니 그게 그렇게나 비난 받을 일인가? 이렇게 늘 쫓기고 혼나고 욕먹어 가면서 근근이 버텨온 잉그리드 앞에 일생일대의 과제가 떨어진다. 물론 이 모든 일상

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고 빌긴 했지만 전혀 엉뚱한 기회 혹은 고난이 닥친 것이다. 요즘 대학들 사이에서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 ‘국제협력’ 트렌드에 발맞춰, 하필 러시아에서 그 파트너를 찾아 국제 학술협력이라는 고상한 임무를 완수하라는 지시였다.

동료들에게 떠밀려 출장을 ‘자원하라는 압박’ 때문에 이 임무를 맡을 자원자가 된 잉그리드는 일반 비자를 발급 받고 비행기를 타는 단계부터 순탄하게 해내지 못한다. 게다가 감기로 컨디션까지 악화되는데, 몸을 추스리려고 마신 감기약 시럽이 예상치 못한 강력한 약효를 발휘하는 바람에 낫선 나라에서 ‘약에 취한’ 상태로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하는 위기에 처한다. 노르웨이가 가장 추운 줄 알았더니 비교도 안 되게 추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와이파이가 된다고는 하는데 도저히 신호를 잡을 수도 없고 입에 맞는 음식도 없는 이곳에서, 과연 잉그리드는 맨 정신도 아닌 감기약에 취한 상태로 국제 협력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잘 해낼 수 있을까? 아니면 문득 과민한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무서운 상상처럼 시베리아의 얼음 구덩이 속에 처박히는 듯 학교에서도 쫓겨나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해내는 엉망진창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인가?

생각도 많고 고민은 많은데 그 세밀함이 행동으로 실천되지는 않는 예민하고 욕심 많은 여성, 잉그리드의 삶은 사람들의 심리와 생김새를 기가 막히게 묘사하는 작가의 특별한 실력 덕분에 더욱 생생하게 와 닿는다. 엄마로, 어엿한 직장인으로 제대로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유쾌하고 엉뚱한 실수들, 사고들을 통해 코믹하게 그려낸 재미 있는 소설이다.

#### <저자 소개>

J.S. 드랭숄트(J.S. Drangsholt)는 노르웨이 스타빙게르 대학교 부교수로 학생들에게 문학을 가르치고 있다.

제목 : DEAD WOMAN WALKING

가제 : 도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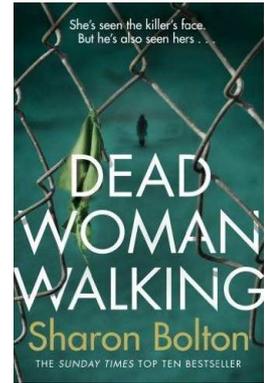
저자 : Sharon Bolton

출판사: Bantam Press

발행일: 2017년 4월 20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소설/ 스릴러



\* 영국의 인기 스릴러 작가, 전 세계 20개 언어로 100만부 이상 판매고를 올린 범죄소설 작가의 신작

\* “볼튼의 소름 끼치는 이야기에는 놓친 부분도 없고 과장된 뉘앙스도 없다.” - 「커커스 리뷰」

열기구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 발 아래 펼쳐진 세상을 바라보는 것만큼 짜릿하고 즐거운 경험도 없을 것이다. 비행기나 케이블카와 달리 바람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고 패러글라이딩이나 스카이다이빙에 도전할 만큼 큰 담력이 없는 사람도 열기구 정도는 얼마든지 시도해볼 수 있다. 그런데 하늘 높이 등실 떠오른 열기구에서 내려다본 풍경 속에 보지 말았어야 할 장면이 섞여 있다면? 게다가 이미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공중이라 도망갈 곳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면? 수많은 베스트셀러 범죄소설을 발표한 노련하고 재능 넘치는 작가는 이 기발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또 한 편의 긴장감 넘치는 스릴러를 완성했다. 땅과 하늘에서 딱 마주친 살인자와 목격자, 두 사람의 피 말리는 추격전은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내면 깊이 숨겨둔 각자의 어두운 과거와 결합되어 점점 더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노섬벌랜드 국립공원에서 열기구를 타보자는 아이디어는 제시카가 먼저 떠올렸다. 어릴 때부터 늘 의지하고 좋아했던 언니 이사벨의 마흔 번째 생일을 맞아 준비한 깜짝 선물이었다. 커다란 직사각형 모양의 열기구 바구니는 네 칸으로 되어 있고 한 가운데 열기구 조종사를 위한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불이 지펴지고 지상과 점점 멀어지자 드넓게 펼쳐진 공원의 푸르른 풍경이 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도로도, 자동차도, 매연도 전혀 없는 깨끗한 자연, 어느 쪽을 둘러봐도 오직 풀과 나무, 자연만이 두 눈 가득 들어오는 경험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파일럿까지 열세 명의 탑승자들은 사진도 찍고, 야생동물도 구경하고,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저마다 이 특별한 시간을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공기마저 숨죽인 듯 고요하고 평온한 풍경 속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짙은 머리카락에 파란색 옷을 입은 젊은 여성이 달려가는 모습, 그 뒤를 키는 작지만 몸이 우락부락한 가죽점퍼 차림의 남자가 뒤따르는 장면이 열기구에 탄 제시카와 이사벨의 눈에 들어온 것이다. 아버지와 함께 탄 남학생 하나는 그 남자의 손에 라이플이 들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깜짝 놀라 다들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던 그때, 남자는 도망치는 여자를 붙잡아 손에 쥔 돌로 그녀를 내리 찌었다. 죽기 직전 열기구를 올려다보며 여자가 질러대던 비명 소리가 똑 끊기자, 살인자와 곁에 있던 셰퍼드가 동시에 하늘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비극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망원경을 들고 남자를 바라보던 열기구 조종사는 그가 라이프를 겨누고 날린 총알 한 방에 그대로 머리가 날아가고 말았다. 그는 자신이 방금 저지른 살인을 지켜본 사람들을 살려둘 생각이 전혀 없었다. 열기구를 날려버리기로 작정한 그는 총알 세례를 퍼부었고, 조종사도 없이 그대로 공중에 노출된 사람들은 그대로 땅에 추락하고 말았다. 모두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남자가 가장 눈에 불을 켜고 찾던 여자가 보이지 않았다. 공중에서 대범하게 휴대폰을 꺼내고 자신의 얼굴을 촬영하던 여자, 바로 제시카였다.

열기구가 추락할 때 나무 꼭대기에 떨어져 간신히 살아남은 제시카는 살인 장면과 남자의 얼굴이 찍힌 증거자료를 안고 미친 듯이 달아나기 시작한다. 추락 사고 현장에 도착한 뉴섬버랜드 경찰국 소속 에이펙스 형사는 생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유일한 목격자인 제시카를 찾아내기 위해 또 다른 추적에 나선다. 하지만 제시카의 행방은 공중 분해된 것처럼 살인자 패트릭에게도, 에이펙스 형사에게도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장소에 숨어든 제시카, 그러나 그 생각은 열기구를 하필 그 날, 그 장소에서 타기로 했던 것보다 더 섬뜩하고 무서운 착각이었다.

포기를 모르는 집요하고 교활한 살인자, 그를 피해 달아나는 제시카의 시선이 번갈아 가며 이끌어가는 이야기는 두 사람이 감추고 살아온 어두운 과거가 하나 둘 공개되면서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나아간다. 이사벨이 종교인도 아니면서 굳이 수녀가 됐어야만 했던 이유, 두 자매가 오래 전에 겪은 가족의 비극적인 사건, 오빠 네드와 이사벨 언니가 인연을 끊게 만든 사건과 그때부터 시작된 트라우마, 그리고 제시카가 열기구에서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본 살인자의 비밀은 빠르게 전개되는 추격전 속에서 책을 놓을 수 없게 만드는 흡입력을 뽐어낸다.

#### <저자 소개>

샤론 볼튼(Sharon Bolton)은 영국에서 태어나 춤, 연기, 경영,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 몸담으며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결혼 후 전업 작가의 길로 들어섰다. 이후 현재까지 읽는 순간부터 오싹하게 만드는 범죄 소설을 다수 발표하며 평단의 호평과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작가 대열에 올랐다. 국내에는 『뱀이 깨어나는 마을(원제: Awakening)』로 국내에 처음 소개됐다. CWA 골드 대거 상(CWA Gold Dagger) 범죄소설 부문 결선에 올랐으며 Theakstons Old Peculier Crime Novel 상을 수상했다. 『Sacrifice』, 『Blood Harvest』 등 다양한 작품들이 현재까지 20개 언어로 세계 곳곳에서 출간되어 10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다.

제목 : WATCH ME

가제 : 나를 봐

저자 : Jody Gehrman

출판사: St. Martin's Press

발행일: 2018년 1월

분량 : -

장르 : 소설/ 심리 스릴러



**\* 다양한 수상 경력의 소설가 겸 극작가가 선보이는 놀라운 심리 스릴러**

**\* 삶도, 좋아하는 일도 하락세에 접어든 여교수, 타고난 재능과 어딘가 기괴한 면을 동시에 가진 남학생의 서로를 향한 집착과 강렬한 감정, 그로 인한 뜻밖의 결말**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영문학을 가르치는 케이트는 얼마 전 이혼을 하고 별 재미 없는 삶을 살고 있다. 뭐든 함께 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던 친구 조마저 얼마 전 덜컥 임신을 하는 바람에 웅한 마음은 날로 깊어만 갔다. 비록 조의 남편이 동네 빵집에서 빵이나 굽는 별볼일 없는 사람이고 자신과 조와 달리 문화생활 같은 데엔 전혀 관심도 없는 리얼리티 TV쇼 광이지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느라 들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은 케이트의 공허함을 키우기에 충분했다. 사실 케이트는 어린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더 솔직히 말하면 기겁하는 축에 속하지만 아이 가진 여자들은 세상에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케이트 같은 여자들을 안쓰러워하기까지 해서 더욱 불편하게 만든다. 이제 풍선처럼 배가 부풀어 오른 조와 마주 앉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가 그런 감정을 내보이는 것에 다소 불쾌해하며 창밖을 내다보던 케이트는 스쳐 지나간 그 남자를 한눈에 알아봤다. 샘 그리스트. 수업을 듣고 있는 좀 이상한 남학생이 분명했다.

지나갔나 싶었던 샘은 어느 새 카페에 들어와 케이트에게 눈인사를 건넸다. 수업 내내 자신을 꿰뚫듯 쳐다보는 바람에 유독 눈에 띄었던 샘은 이 우연한 만남에서도 특유의 뚫어져라 바라보는 시선을 케이트에게 던졌다. 누가 봐도 흰칠하고 몸매도 탄탄한 샘에게 조는 실례인 줄도 모르고 대뜸 나이를 물어본다. 스물두 살. 사실 케이트도 궁금해하던 정보였지만, 마음과 달리 조에게 핀잔을 주고는 없는 약속까지 만들어내며 겨우 샘을 가게 만들었다. 허둥대고 거짓말까지 하는 케이트를 휘둥그런 눈으로 응시하던 조는 오랜 친구만이 알 수 있는 직감을 케이트에게 고스란히 전했다. 저 남학생이 케이트를 우상처럼 좋아하고 있으며, 케이트도 저 어린 학생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친구의 너무나 노골적인 평가에 케이트는 질겁을 하지만, 샘에게서 거부할 수 없는 끌림을 느낀 건 사실이었다.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알 수 없지만 그에게는 자꾸 신경을 쓰게 만드는 묘한 구석이 분명히 있었다.

이미 5년 전부터 케이트를 지켜봐 온 샘은 그녀가 사는 곳, 그녀가 하는 일을 대부분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철저한 계획대로 케이트가 있는 곳으로, 그녀가 자신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조금씩

나아갔다. 가만히 있으면 마치 아무 감정이 없는 기계처럼 얼굴이 무서울 만큼 굳어버리는 샘은 주변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자신을 이상하다고 생각하다 못해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필요한 순간에 입에 미소를 띄우고 눈썹을 움직여 표정을 만들어내는 법을 익힐 수밖에 없었지만, 케이트를 생각하고 눈 앞에서 그녀를 볼 때만큼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온 얼굴에 절로 미소가 피어나는 걸 느꼈다. 아무것도 아닌 행동, 가을이 내려 앉은 캠퍼스를 초록색 스카프를 날리며 걸어가는 모습만으로도 샘은 심장이 멎을 듯한 감격에 젖었다. 그의 눈에 케이트는 너무나 완벽한 존재,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수업 시간에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의논한답시고 교수실을 찾아왔을 때도 샘은 케이트가 시선을 어디에 뒀야 할지 모를 정도로 노골적이고 뜨거운 시선을 던진다. 결혼도 했었고 그토록 좋아하고 바라던 소설가의 꿈도 이루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삶에 깊이 절망하던 케이트에게 갑자기 나타난 샘은 살아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존재이자 세상에 아무 존재감 없는 한낱 먼지 같던 자신이 더 없이 의미 있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는 존재였다. 두 사람의 관계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 점점 더 깊어지고 서로 외엔 다른 무엇도 중요치 않은 것처럼 생각될 만큼 감정은 극으로 치달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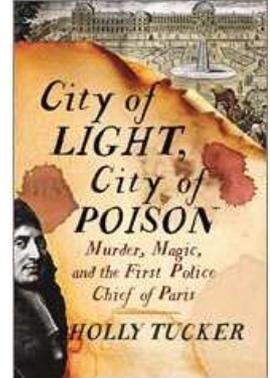
케이트와 샘의 시선에서 바라본 두 사람의 관계가 짙막한 장에서 번갈아 가며 전해지며 묘한 긴장감을 더한다. 평범해 보이지만 내면이 크게 허물어진 두 사람이 서로를 유혹하고 유혹을 받는 과정은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둘 다 결코 신뢰할 수 없는 왜곡된 시각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스릴러의 영역으로 나아가기 시작한다. 흥미롭고 흡입력 있는 독특한 심리 스릴러 소설이다.

#### <저자 소개>

조디 게르만(Jody Gehrman)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멘도시노 대학에서 영어와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치고 있다. 『NOTES FROM THE BACKSEAT』, 『TART』, 『SUMMER IN THE LAND OF SKIN』, 등의 소설과 여러 편의 각본을 썼다. 특히 YA 소설 『BABE IN BOYLAND』는 국제독서협회로부터 'Teen Choice Award'를 수상했다.

## **NON- FICTION**

제목 : CITY OF LIGHT, CITY OF POISON  
가제 : 빛의 도시, 독약의 도시  
저자 : Holly Tucker  
출판사: W. W. Norton & Company  
발행일: 2017년 3월 21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역사/범죄



- \* 퍼블리셔스 위클리, 미국 도서관협회, 라이브러리 저널 선정 **2017년** 봄 시즌 ‘기대되는 도서’
- \* “진지하고 세심한 연구로 완성된 논픽션이자 거부할 수 없는 스토리를 만날 수 있는 책”- 「**Hero of the Empire**」의 저자 캔디스 밀러드
- \* “흥미진진한 미스터리 소설, 그리고 로맨스와 반전 있는 범죄 음모가 얽힌 뒤마의 작품을 결합한 듯한 느낌을 안겨 준다.”- 「퍼블리셔스 위클리」

1665년, 루이 14세가 통치하던 프랑스에서 두 건의 충격적인 살인 사건이 벌어진다. 첫 번째 희생자는 파리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대부분 관할하고 처리해온 중위로, 강도에게 급습을 당해 서투른 솜씨로 마구 찢려 숨진 것 같은 정황이 발견됐다. 이어 그와 함께 파리의 각종 분쟁을 해결하고 범죄수사를 맡아온 동료가 1년 뒤, 독살된 채 발견됐다. 범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는 이 사건에 격한 수치심을 느낀 국왕은 니콜라 드 라 레이니(Nicolas de La Reynie)를 파리 최초의 경찰 총감으로 임명한다. 자신만만하고 적극적인 성격에 두려움이 없는 레이니 총감은 지저분하고 소름 끼치는 일들이 가득한 파리 곳곳의 거리를 누비며 범인을 찾아 나서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한다. 마녀, 독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 심지어 성직자까지 가담한 촘촘한 범죄 네트워크는 더러운 뒷골목은 물론 베르사유 궁전까지 그 힘을 뻗치고 있었다. 무고하게 희생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총감은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하지만 누구도 완벽하게 안전한 사람은 없다는 무서운 사실만이 그 실체를 드러낸다. 태양의 왕, 루이 14세도 예외가 아니었다.

당시의 법정 문서와 레이니 경감이 남긴 수사 기록 등 저자는 꼼꼼하게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17세기 프랑스 역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비밀 음모 사건을 이 책에서 재조명한다. 왕의 정부까지 개입된 섬뜩한 독살 사건과 마법으로 사람들의 정신을 홀리려는 자들의 사악한 음모는 저자의 유려한 문장과 실제 일어난 일이 전하는 생생함 덕분에 페이지마다 살아 숨쉬는 것처럼 실감나게 전해진다.

실제로 레이니 총감은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하던 파리의 위생 상태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수천 개의 가로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대규모 캠페인을 벌여 야간에 횡행하던 범죄를 대폭 줄이는데 일조했다. 그리고 ‘독살 사건’으로 역사에 남은 살인 범죄를 파헤쳐 당시 프랑스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던 귀족들, 왕실 내부 사람들까지 포함된 연쇄적인 범죄 실태를 벗겨내는 쾌거를 이루었다. 수백 명이 수감되고 서른 명 넘는 사람이 처형된 이 엄청난 사건 기록은 결국 레이니 총감이 수사 도중 죽음을 맞이한 후 왕이 직접 태워버린 것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지만, 저자는 남아 있는 기록들을 샅샅이 조사하여 이 사건의 발단부터 결말까지의 모든 일들을 한시도 긴장을 놓을 없는 미스터리 소설처럼 그려냈다.

범죄에 찌든 빛의 도시, 화려한 궁전, 비밀 재판이 열린 법정으로 독자를 이끄는 흡입력 있는 역사서이다.

#### <목차>

#### 1부. “밤낮없이 이곳에서 살인이 벌어진다.”

1. 세계의 범죄 중심
2. 빛의 도시
3. 세상의 끝에서 만난 거리
4. 시장으로

#### 2부. 하트 킹

5. 이유 없는 불안
6. 이슬, 그리고 급류
7. 숫자 1이 표시된 문
8. “그자가 날...목 졸라 죽일 겁니다.”

#### 3부. “우리 모두를 독살범으로 만들 거예요.” (9- 14장)

#### 4부. “스캔들을 가라앉혀라.” (15- 21장)

#### 5부. “악마에게 영혼을 내어준 여자” (22- 28장)

#### 6부. 사악한 진실

맺음말 / 시간 순서로 정리한 독약사건

#### <저자 소개>

홀리 터커(Holly Tucker)는 미국 밴더빌트 대학교에서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교수로 재직 중이며 생물의료윤리·사회학 센터에도 소속되어 있다. 저서로는 「LA 타임스」 도서상 결승작이자 「타임」지와 「시애틀 타임스」 최우수 도서로 선정된 『Blood Work: A Tale of Medicine and Murder in the Scientific Revolution』이 있다.

제목 : FIT MATTERS

가제 : 잘 맞는 직업,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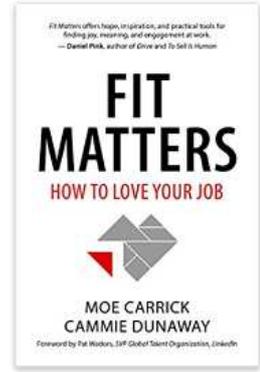
저자 : Moe Carrick, Cammie Dunaway

출판사: Maven House Press

발행일: 2017년 5월 9일

분량 : 약 256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 **“전문적 역량과 개인의 가치를 끌어내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 직업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귀중한 지침서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Triggers」**의 저자 마셜 골드스미스
- \* **“잘 맞지 않는 일을 하면 직원 자신이나 회사 모두에게 좋지 않다. 두 저자는 일하는 사람과 조직이 일치되는 지점을 찾고 일을 즐길 수 있는 해결책을 제공한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Drivers」**, **「To Sell Is Human」**의 저자 대니얼 H. 핑크

하루에 주어진 24시간 동안 우리는 참 많은 일을 하다. 잠도 자고, 먹고, 놀고, 생각하고, 운동하고, 아이가 있으면 아이를 돌보고, 취미생활도 한다. 그 중에서도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 다른 모든 일들을 유지하고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일’이다. 직업에서 만족감을 느끼면 삶 전체가 행복하고 풍요롭지만 그렇지 못하면 인생이 괴롭고 시들해진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나 구직자를 찾는 조직 모두 이 당연한 사실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 왜 그럴까? 경험상, 혹은 주변에서 수시로 듣는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 우리는 일하는 사람과 일을 시키는 조직의 관심사, 목표, 가치가 일치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일인지, 동시에 직원과 회사 모두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이 괴리를 뛰어넘어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돈을 벌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맞지도 않는 일을 꾸역꾸역 해대느라 고역인 사람들의 반대편에는 그런 직원들로 인해 조직 전체에서 발생하는 물질적, 비물질적 비용을 절감하려고 애쓰는 무수한 고용주들이 있다. 수십 년간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양쪽 모두를 만나 고충을 듣고 해결방법을 함께 고민해온 두 저자는 모두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포기하는 그 접점, 자신에게 잘 맞는 일을 찾는 방법을 이 책에서 소개한다. 잘 맞는 직업은 한 번 찾으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현재 인생의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영향을 받는 동적인 개념이라는 신선한 아이디어와 함께 두 저자는 총 여섯 가지 핵심 요소를 제시한다.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잘 맞는 직업의 여섯 가지 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현재 자신이 하는 일, 찾고자 하는 직업에서 이 요소들이 어떤 상태인지 파악한다면 보다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마침내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다고 두 저자는 설명한다.

맞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다 보면 돈은 벌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스스로도 고통스럽고 주

변 사람들, 가족들도 괴로워진다. 뿐만 아니라 회사, 지역사회, 멀게는 전 세계에 그로 인한 악영향이 확산된다. 스트레스가 내려가질 않고 업무 성과는 제자리이거나 갈수록 떨어지면 좋아하지도 않고 잘 하지도 못하는 일을 붙든 상태로 삶 전체를 내내 불만족스럽게 흘려 보낼 수 있다. 폭넓은 자료 조사와 근로자, 사업장 대표들, 조직 내 리더들과의 광범위한 인터뷰, 그리고 오랜 컨설팅 경험을 토대로 두 저자는 잘 맞는 일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꼭 그런 일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절감했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이유와 구체적인 방법을 상세히 알려준다. 자신이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현재 자신과 조직이 처한 상황을 종합하여 가장 알맞은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익한 정보서다.

<목차>

1부. 맞는 직업이란 무엇인가

1. 잘 맞는 직업의 의미
2. 안 맞는 직업을 알아보려면

2부. 잘 맞는 직의 여섯 가지 요소

3. 의미
4. 일
5. 문화
6. 관계
7. 생활방식
8. 경제적 측면

3부. 잘 맞는 직업이 중요한 이유 (9- 11장)

4부. 내게 잘 맞는 직업 찾기 (12- 13장)

5부. 잘 안 맞는 일에 대처하는 법 (14- 17장)

결론. 잘 맞는 직업의 미래

<저자 소개>

모 캐릭(Moe Carrick)은 캘리포니아 안티오치 대학교에서 조직관리를 공부하고 컨설팅 업체 'Moementum, Inc.'의 창립자이자 대표를 맡고 있다. TEDx 등 다양한 곳에서 강연을 해 왔다.

캠미 더너웨이(Cammie Dunaway)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하고 닌텐도, 야후, 프리토 레이 등에서 영업, 마케팅 담당자로 일했다. 최근에는 키자니아 미국 대표 겸 국제 마케팅 책임자로 근무했다.

제목 : NUJEEEN

가제 : 누진 (부제: 휠체어를 타고 전쟁에 찢긴 시리아를 벗어난  
한 소녀의 놀라운 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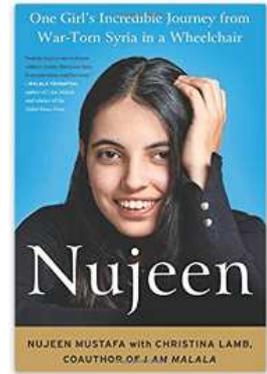
저자 : Nujeen Mustafa, Christina Lamb

출판사: Harper Wave

발행일: 2016년 10월 11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회고록



- \* “누진의 이야기는 난민에게도 평화와 교육,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열망과 꿈이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 『I Am Malala』의 저자, 노벨평화상 수상자 말랄라 유사프자이
- \* 독일어, 스웨덴어, 핀란드어, 덴마크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로 번역될 예정
- \* 휠체어에 탄 몸으로 고향 시리아를 떠나 독일까지 건너온 열여섯 살 소녀, 그 16개월간의 여정

장애인이란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텔레비전으로 모든 지식과 언어를 배운 영리한 소녀, 누진 무스타파의 이야기는 2015년 9월 영국 BBC에 처음 소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시리아에서 독일까지 장장 16개월 동안, 멀쩡한 몸으로도 힘든 그 여정을 휠체어에 앉은 채로 해낸 이 용감하고 대담 소녀의 이야기는 금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파키스탄에서 여성과 어린이의 교육권을 위해 싸운 1997년생 인권운동가이자 2014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말랄라 유사프자이를 떠올리게 하는 이 시리아 소녀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말랄라의 회고록을 쓴 세계적인 해외특파원, 크리스티나 램과의 공동 작업을 통해 한 편의 아름다운 회고록으로 완성됐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를 앓고 고향은 전쟁으로 찢기고 불탄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은 어린 영웅의 모험과 불굴의 용기를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다.

누진은 네 명의 언니 중에서 이미 세 아이를 낳고 뱃속에 또 다른 아기가 있는 큰언니와 한 시도 눈을 떼지 않고 세심하게 보살펴주는 언니 나스린, 그리고 더운 여름의 어느 날, 한꺼번에 총에 맞아 숨진 이모들, 삼촌들의 아이들인 사촌들과 함께 이 험난한 탈출 길에 올랐다. 출발하기 전에 경로를 찾고 지역별로 정보를 모으는 일은 누진이 맡았다. 사진과 글로만 보던 풍경이 마침내 눈 앞에 펼쳐지고 난생 처음 보는 바다의 푸른 빛깔이며 보드라운 모래사장이 바로 코 앞에 나타날 때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도 잠시 잊고 소녀처럼 그 아름다움에 푹 빠지기도 했다. 출발하기 전에 오빠가 구해준 삼성 스마트폰 덕분에 구글 지도로 가는 길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밀수업자를 약속한 지점에서 만나 드넓은 바다를 건너가는 것, 그래서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는 것이 사촌들과 세 자매의 목표였다. 이라크, 모로코,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서른 여덟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1인당 작게는 1,000달러, 많게는 1,500달러라는 비싼 뱃삿을 내고 밀수업자의 작은 보트에 올랐다. 하지만 큰 돈을 내야만 하는 일이나 작은 배에 너무 많은 사람이 오르는 위

힘은 해안 경비대의 눈을 피해 무사히 출발해야 하는 위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매 순간, 한밤 중에 고요한 나무 아래에서 숨죽여 잠시 눈을 붙이는 순간에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탈출의 여정은 그렇게 16개월간이나 지속됐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인간 정신의 승리를 보여준 누진은 신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삶, 새로운 세상을 만나겠다는 일념 하나로 험난한 여행길에 올랐다. 도보로, 보트로, 버스로 터키에서 지중해를 건너 그리스,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헝가리를 거쳐 마침내 독일에 도착하기까지 셀 수도 없는 역경과 고생이 누진과 일행 앞에 나타났지만 누진에게 절망은 없었다. 열정과 희망,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스스로 원하는 것을 쟁취해낸 감동적인 이야기는 난민들이 처한 비참한 실상을 우리에게 낱알이 보여주는 동시에 현실에 안주하거나 쉽게 포기하는 우리의 나태하고 게으른 마음에 한줄기 불꽃처럼 강렬한 자극을 준다.

#### <목차>

시작하면서. 횡단

#### 1부. 나라를 잃다

1. 내 나라에서 외국인이 되다
2. 알레포의 벽
3. TV에 나온 소녀
4. 분노의 나날들 (이하 생략, 8장까지 구성)

#### 2부. 여행

9. 세상을 넓혀보자
10. 밀수업자를 찾아서
11. 죽음의 길
12. 평범한 사람의 자유 (이하 생략, 17장까지 구성)

#### 3부. 평범한 삶

18. 외국에서 외국인이 되다
19. 마침내 학생
20. 새해의 두려움
21. 집이라 부를 수 있는 곳

부록: 나의 여정

#### <저자 소개>

크리스티나 램(Christina Lamb)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해외 특파원 중 한 사람으로, 1987년부터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지역의 소식을 전해왔다. 영국 올해의 해외특파원 상을 다섯 번 수상하고 유럽 종군기자에게 수여되는 가장 명성 있는 상도 수상했다. 저서로는 『Farewell Kabul』,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I Am Malala』 등이 있다.

제목: VITAL VOICES

가제: 바이털 보이스 (부제: 세계의 변화를 주도한 여성들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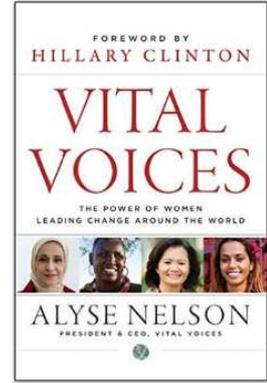
저자: Alyse Nelson

출판사: Jossey- Bass

발행일: 2012년 6월 5일(초판)

분량: 304 페이지

장르: 사회



- \* **“평등을 넘어서 리더십, 정의, 그리고 침묵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었던 이전 세대의 목소리를 전하는 단체 ‘바이털 보이스’의 메시지가 담긴 책” – 미국 전 국무장관 매들린 올브라이트**
- \* **“이 책은 여성 리더십의 힘과 가능성을 포착하여 혁신적인 모델을 제시한다.” – 라이베리아 대통령, 2011년 노벨평화상 후보 앨런 존슨설리프**

“우리는 전 세계에 또렷하게, 한 목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이 여성들은 영웅이고, 가치 있는 일을 해냈으며 이들이 낸 목소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1995년 9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유엔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영부인 자격으로 연단에 선 힐러리 클린턴의 연설은 지금까지도 명연설 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다. 세계 최초로 “여성의 권리는 인권”이라고 강력히 외친 힐러리의 외침은 1997년,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여권신장 사업으로 곧장 이어졌다. 사회 전체가 여성들의 성장과 권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이끌기 위한 이 ‘바이털 보이스 (Vital Voice)’ 사업은 비영리단체로 새롭게 변신하여 현재 127개국 10,000명 이상의 여성 리더들이 모인 여성 단체로 성장했다. 정치, 인권운동, 경제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 여성 리더들은 전 세계를 돌면서 50만 명이 넘는 여성들에게 멘토가 되어주고 교육을 실시해 왔다. 현재 ‘바이털 보이스’의 CEO를 맡고 있는 저자는 여성의 힘으로 세상을 바꾼 놀라운 이야기를 이 책에서 우리에게 들려준다. 15년 넘게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속수무책으로 온갖 역경과 고충에 시달리던 여성들을 바로 일으켜 정부의 핵심 인사가 되고 사회 정의를 위해 싸우는 적극적인 운동가가 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알리는 대변자가 되도록 노력해온 귀중한 시간들과 놀라운 결실을 만나볼 수 있다.

여성이 발전하면 세계가 발전한다. 언뜻 의아하게 들릴 수 있는 이 말은 여성의 대학 진학률과 소득수준, 자녀를 낳은 여성들의 건강 상태가 향상되고 여성 대상 폭력이 감소할수록 사회 전체의 번영 지수가 높아지고 가족 전체의 교육 수준과 건강이 개선되고 전체 인구의 인권이 향상된다는 통계자료로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성이라는 이 귀중한 자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바이털 보이스’는 바로 그런 지역을 찾아가 여성 스스로 더 나은 삶을 개척하고 나아가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설 수 있는 힘과 역량을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한 마음으로 뭉친 노던 아일랜드의 엄마들, 아이티에 새로운 경제개발 기회를 만들어낸 여성 기업가들처럼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 포기하기

쉬운 고난을 변화의 기회로 만들어낸 용감한 여성들의 이야기부터 라이베리아 여성 대통령 앨런 존슨설리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민주주의의 수호자 아웅 산 수지 여사, 칠레의 전 여성 대통령 이켈 바첼레트, 나이지리아 전 재무부 장관이자 경제학자 응고지 오킨조 이웰라, 미국 상원의원 케이 배일리 허친슨 등 여성의 힘과 영향력, 역량을 강력한 추진력과 결합시켜 거대한 변화를 일궈낸 세계적인 여성 지도자들의 이야기도 1인칭 시점에서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

놀라운 사례와 함께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5단계 모형을 제시하여 개인의 삶, 사회의 변화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을 함께 알려준다.

#### <목차>

서문 - '바이털 보이스' 창립자 힐러리 클린턴

머리말

1. 동력, 혹은 사명감
2. 선을 넘어 분리된 양쪽을 연결하는 능력
3. 대담한 아이디어, 대담한 행동
4. 선행

결론: 리더십은 목적지가 아닌 여정이다

맺음말

#### <저자 소개>

앨리스 넬슨(Alyse Nelson)은 터프스 대학교에서 법률과 외교학을 공부하고 현재 여성 단체 '바이털 보이스 글로벌 파트너십(Vital Voices Global Partnership)'의 대표를 맡고 있다. 1996년부터 전 세계 140여 국가에서 멘토링,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200명 이상의 국제사회 리더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왔다.

제목 : GENERAL INTELLECTS

가제 : 일반 지식인(부제: 21세기를 대표하는 스물한 명의 사상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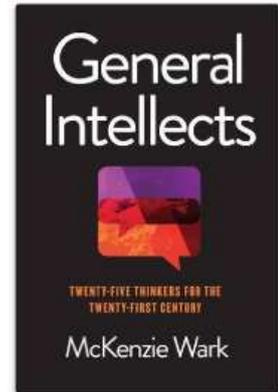
저자 : McKenzie Wark

출판사: Verso Books

발행일: 2017년 5월 9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철학



**\* 21세기를 대표하는 스물 한 명의 사상가들,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대중에게 지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론과 생각을 정리한 책**

‘제2의 성’이라는 개념으로 서구 페미니즘에 제2의 물결을 일으킨 작가, 시몬 드 보부아르와 대표적인 실존주의 사상가 장 폴 사르트르, 로마 가톨릭 교회와 파시즘에 적극적으로 반대한 파올리니, 흑인과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에 맞선 작가 제임스 볼드윈, 그리고 소설가 조지 오웰과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사람들에게 ‘공공 지식인’이라 불린다는 점이다.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는 사안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회적 비판의 장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람들, 자신이 전문적으로 알고 닦고 연구한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 현상과 사건에 관한 견해를 표출하면서 대중의 의식을 증진시킨 사람들을 우리는 ‘공공 지식인’이라 칭한다. 이들은 일상에 찌들어 비판의 날이 무뎠던 대중에게 날카로운 말과 글로 번쩍 정신이 들게 만들고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일깨우는 자극제의 기능을 했다. 그런데 현 시대의 공공 지식인은 누구일까? 저자는 과거와 달리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머릿속에 곧바로 떠오르는 대표적인 공공 지식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 자리는 또 다른 지식인들이 차곡차곡 채우고 있다. 글과 말로 우리가 처한 상황, 이 시대를 설명하는 이 새로운 지식인들을 저자는 ‘일반 지식인’이라 명명하고, 21세기를 대표하는 스물한 명의 사상가들을 선별하여 이 책에서 소개한다. 문화, 정치, 직업사회, 기술, 그리고 현재의 지질 시대를 일컫는 ‘인류세’ 등 각기 다른 주제에 대해 이들이 제시하는 이론을 각 장마다 소개하고, 현대 다른 지식인들의 이론과 어떤 부분에서 대립하고 결합되는지도 보여준다.

저자는 전체적인 지식 수준이 과거보다 훨씬 증대되고 확대된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각기 다른 분야에서 나온 다양한 지식과 아이디어가 결합되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 거대한 지식의 메커니즘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지식을 지적 재산권의 형태로 사유화하고 상품화하는 지금과 같은 방식도 불가피하겠지만, 저자는 자본주의 방식으로 지식을 확산시키는 방법을 뛰어 넘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필요하고, 각 분야의 사상가들이 제시하는 이론과 세계관을 제대로 파악하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러므로 이 책은 바로 이 과정을 밟는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저자는 자유방임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롭

계 등장한 신자유주의식 교육 방식과 지식의 확대를 추구하는 현재의 대학과 교육기관이 ‘이상주의적 개인주의’라는 원칙을 내세우는 바람에 세상의 변화를 분석하고 바라본 개개인의 연구와 지식이 하나로 정리되고 결합되는 데 큰 장벽이 생겼다는 사실도 이 책에서 지적한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목차>

머리말

1. 에이미 웬들링: 막스의 형이상학과 ‘육류물리학’
2. 코진 가라타니: 세상의 구조
3. 파올로 비르노: 문법과 다수
4. 얀 물리에 부탕: 인지적 자본주의
5. 모리지오 라자라토: 기계 노예
6. 프랑코 비포 베라르디: 상품이 된 영혼
7. 앤젤라 맥로비: 만들어낸 위태로움
8. 폴 길로이: 인종의 존속
9. 슬라보예 지젝: 절대적 반동
10. 조디 던: 상징적 효율성의 감소

(이하 생략, 21장까지 구성)

<저자 소개>

맥켄지 와크(McKenzie Wark)는 뉴욕 뉴스쿨 대학교와 유진 량 칼리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A Hacker Manifesto』, 『The Beach Beneath the Street』, 『Molecular Red』 등의 저서를 발표했다.

제목 : NOVICE TO EXPERT

가제 : 초보 전문가를 위한 안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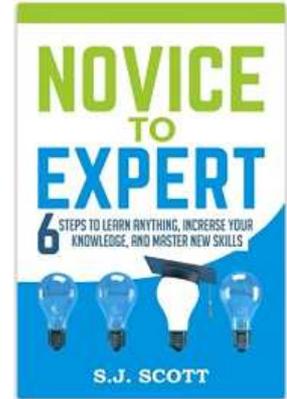
저자 : S.J. Scott

출판사: CreateSpace Independent Publishing Platform

발행일: 2017년 1월 2일

분량 : 136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 어떤 기술이든 거창한 교육과정에 등록하지 않아도 스스로 습득할 수 있는 6단계 학습법
- \* 월스트리트 저널 베스트셀러 저술가가 소개하는 습관의 힘, 효율적인 자습 방법

직장에서 업무를 하는 사람이든 집에서 살림을 사는 사람, 공부하는 학생들 모두 어느 순간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만 하는 상황과 마주한다. 호기심이 많아서 새로운 기술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도 일 때문에 관심도 없던 언어를 배우거나, 특정 장비를 다루는 법을 익히거나, 입사하려는 회사에서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잘 모르는 기술을 배워야 하는 일들이 생긴다. 자녀에게 동화책 하나를 읽어주는 것도 구연동화나 ‘스토리텔링’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이니 배워야 할 기술은 그야말로 넘쳐난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바로 학원 등 그 기술을 가르쳐주겠다고 나선 곳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대체로 얻는 결과는? 다른 업무와 일정에 쫓겨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거나, 열심히 따라가려고 했지만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익숙해지지 않아서 포기해버린다. 자기계발과 시간 활용, 습관 개선에 관한 책을 서른 권 이상 쓰면서 정보를 공유해온 저자는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 할 때 접근 방법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한다. 굳이 비싼 돈 들여서 학원에 다니지 않아도 스스로 어떤 기술이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힘, 자기 학습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단언하면서, 저자는 우리 대부분이 미심쩍어하는 자신의 자습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준다. “기술을 익히기 위한 기술”, 습관을 바꾸고 전혀 몰랐던 지식, 기술도 얼마든지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상세히 소개된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학습의 기본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적극 활용하고 넓혀나가는 것, 그리고 익숙하지 않아서 자신도 모르게 외면하게 되는 새로운 습관과 기술을 일부라도 계속 사용해서 습관으로 굳히는 것, 그리고 학습 목표를 너무 방대하게 잡지 말고 범위를 좁히고 명확히 다듬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이어트 등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인 목표를 위해 달려갈 때 자주 활용하는 기술도 포함된다. 즉 비슷한 목표를 가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목표를 세워서 의욕을 유지할 것, 띄엄띄엄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실천할 분량을 사전에 정해 놓을 것, 새로 익힌 기술은 남에게 가르쳐줄 수 있을 정도로 익히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총 6단계로 구분하고, 각 장에서 단계별로 해당 단계의 의미와 중요성을 짚어주고 실천 방법을 알려준다. 단계마다 마지막에는 ‘연습문제’가 있어서 자신의 이해 수준을 바로 점검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혼자 공부하고 기술을 익힐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147개를 총 정리한 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많은 시간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어떤 기술이든 편안하게 익힐 수 있는 유익한 방법을 알려주는 알찬 정보서다.

<목차>

여러분이 배우고 싶은 건 무엇인가?

기술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새로운 기술의 습득에 관한 세 가지 개념

1단계: 자신의 학습 방식 파악하기

2단계: 배우고 싶은 기술 선택하기

3단계: 학습 습관 구축하기

4단계: 기록하며 실천하기

5단계: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 만들기

6단계: 매일 기술 연마하기

학습을 돕는 여섯 가지 과제

맺음말

<저자 소개>

S.J. 스캇(S.J. Scott)은 심리학을 공부하고 자기계발 분야의 책을 서른 권 이상 쓰고 블로그, 팟캐스트 등을 통해 사람들과 만나왔다. 저서로는 『Declutter Your Mind』, 『Habit Stacking』, 『To- Do List Makeover』 등이 있다.